

새해에 꼭 이루어야 할 것들...

- 사)한국오리협회 고문 장규호



2007년 오리산업 전망

- 조문규 모란식품



도탄에 빠진 가금산업을 살리는 길

- 건국대 생명자원경제학과 교수 김정주



나의 오리체험기 2006년 한해를 되돌아 보며...

- (주) 다영식품 조현상 대리



새로운 시작을 위한

# COLUMN

정해년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해가 바뀌었다고 우리의 일상이 크게 달라질 건 없지만, 그래도 새해 벽두에는 누구나 새로운 변화를 이루는 꿈과 목표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새로운 도전과 도약을 위한 힘찬 출발, 그 시작의 즈음에 도움될만한 정보와 이야기 들을 책속에 묶어 보았습니다.



2007년 정해년(丁亥年)은 황금돼지해 라고 하여 “특히 임신부들이 새해에 아기를 낳으려고 산부인과가 호황이다” 라는 기사를 보며 덩달아 황금돼지해는 매사가 잘 풀릴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면서, 또 회원 여러분의 가정이나 사업장에 좋은 일만 있게 되길 기원 하면서 새해 인사를 드리고자 한다.

오리협회 출범 당시 발간한 특미 “오리고기요리”의 발간사를 보았는데 아래와 같은 구절이 적혀 있어 이 시기에 걸맞은 내용이라고 보아 인용 해본다. 성호이익(星湖李瀾)은 “한 오리가 울면 못 오리가 모여 울고, 한 오리가 동

# 새해에 꼭! ; 이루어야 할 것들

사)한국오리협회 고문 **장규호**



으로 가면 못 오리가 동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모두 따라 가는 것은 서로 사심이 없고 화합하기 때문이다” 라고 오리로부터 무사화합(無事和合)의 지혜를 보았다고 한다. 당시 우르카이 라운드 등 수입개방의 압력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수입오리가 판을 치던 시절, 오리 관련산업 종사자들이 화합 · 단결해서 난국을 타개하고 지금과 같은 일대 도약기를 맞이했던 것이다.

우리는 그 동안에 우리 일만 가지고 매달린 것이 아니고 오리 농법을 보급하기 위하여 책을 발간하고 오리농법연구회를 조직하여 농민들의 교육에 힘쓰는 등 그야말로 멋진 활동을 하였다. 오리농법을 통해 농민들은 물론, 음식

찌꺼기로 인해 고통 받는 많은 국민들이 우리 오리를 찾지 않을 수 없게끔, 또 많은 축산인들이 환경 오염의 주범인양 몰릴 때 오히려 오리는 환경을 지키는 유일한 가축임을 알려 오리를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임을 각인시켰고, 결국 오리고기 소비 저변확대를 도모해 왔던 것이다. 그때의 상황은 지금 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여건이 취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오리업계 종사자들이 힘을 합쳐 하나의 목표를 이루었던 경험이 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오리업계 자체 규모는 그전보다 훨씬 커졌으나 팀워크(team work)을 모른다. 운동경기를 할 때 누가 잘못한다고 질책만 하는 경우 그 팀이 경기에 이기는 지극히 힘들다. 그러나 예전의 경험을 되살려 우리는 다시 할 수 있다고 본다. 그 동안 오리업계는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왔으나, 업종간의 관계에서는 한심할 정도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어느 우화가 생각난다. 인체를 이루고 있는 각 부위를 의인화시켜, 서로 제가 잘났다고 우기다가 결국엔 각 부분 부분이 없으면 안 될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도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우화의 소재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행동들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일이다.

20대에 들은 강의 중에 잠재의식이 반복되면 의식이 되고, 의식이 반복이 되면 행동이 되고, 행동이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이 되면 운명으로 된다며, 주춧돌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도 수십, 수백 년이면 주춧돌에 구멍을 뚫는다는 반복의 효과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의 오리업계 상황은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제라도 바짝 정신을 차려 오리사업이 현재 뿐만 아니라 장

차 후손들에게 물려줄 훌륭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지금은 AI 때문에 온 신경이 쏠려 있으나, AI는 어쩌다 오는 손님이 아니고 이제 연례행사로 치러야 할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바이러스는 항생제로도 막을 수 없어 과다입식을 자제하고, 축사 소독을 철저히 하는 등, 오리가 가지고 있는 면역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방법 밖에 없다. 지금 오리관련 산업 종사자들은 AI 보드에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예민해 있다. 며칠 잠잠할 것 같으면 여기서 툭, 저기서 툭 하고 터지는 바람에 그야말로 미칠 지경이다.

그러나 문제의 답은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옛날엔 문제가 안 된 일들이 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지, 좁은 축사에 최대한 많이 키우려고 하거나 많이 키울 수밖에 없는 여건이어서 각종 항생제나 약제를 다량투입하여 가축의 면역체계가 미처 가동되기도 전에 잘못되는 경우는 없는지 반성해 볼 일이다. 새해 들어 이러한 주문을 하는 이유는 위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전반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끝으로 다시 한 번 회원 여러분의 건투를 빌며 성호이익(星湖李瀾)이 한말을 되새겨 본다.

아람 F/S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23-14 성보빌딩 4층  
전화 : 031-230-3040 , 팩스 : 031-230-3042

